

## 주일예배

SUNDAY WORSHIP

- 1부 : 신앙의 유산을 따라 드리는 전통 예배  
2부 : 친양의 향기를 드리는 디아코니아 예배  
3부 :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

1부. 7:30 2부. 9:00 3부. 11:00 4부. 젊은이예배 13: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말씀			
개회찬송	인도자	찬양대	
1부	2부	3부	
※찬송	43장	경배와 찬양 (꽃들도 외곡)	43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다같이
※성시교독	47.(시편105편)	47.(시편105편)	
기도	한정호 장로	장병섭 장로	박성춘 장로
찬송	449장	449장	다같이
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아고보서 3:13~18		인도자
찬양	주 예수 크신 사랑 Don Besig	임마누엘 찬양대	
	너의 등불 밝히어라 Arr. G.Gilpin	여호수아 찬양대	
	주 의지하라 James and Andrea Barnard	시온 찬양대	
말씀	Face (얼굴)	김한호 목사	
찬송	다시 복음 앞에	다같이	
※축도		김한호 목사	
※ 표는 일어서시는 표입니다			

## 4부 젊은이예배

찬양	청년부 경배와 찬양
기도	유병희 청년
성경봉독	윤예영 청년
말씀	박도준 목사

마가복음 4:30~41

하나님나라를 일구는 사람들

## 영혼을 깨우는 예배

CHUNCHEON DONGBU WORSHIP

인도 1부 : 이백석 목사  
2부 : 최성구 목사  
3부 : 황수영 목사

찬양예배 오후 7시

인도 : 황수영 목사

목도	마태복음 28:19-20	다같이
찬송	383장	다같이
기도		현종만 집사
찬송	384장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스가랴 8:7~8	인도자
찬양		브니엘 찬양대
말씀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백석 목사
찬송	391장	다같이
축도		이백석 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박인숙 전도사

목도	마태복음 28:19-20	다같이
찬송	354장	다같이
기도		정명숙 권사
찬송	428장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창세기 25:27-34	인도자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창[25] 거룩한 욕심쟁이	황수영 목사
찬송	435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심야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시  
(7월~8월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

## 예배·모임·교인동정

CHUNCHEON DONGBU COMMUNITY

## 어부의 눈

FISHERMAN STORY

춘천 CBS 라디오 강단 (93.7MHz)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5분~10시

'어부의 눈'을 통하여 지난주 설교요약을 전합니다. 목회자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건져 올리기에 '어부의 눈'이란 이름을 정했습니다.

## 온전한 말

본문: 야고보서 3:1-12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3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말에 대한 비유, 배에 대한 비유, 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듣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제인 '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하면 사람 몸에서 가장 작으면서 근육이 제일 잘 발달한 곳이 혀라고 합니다.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어떤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삶의 수레바퀴", 즉 "인간 존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혀는 우리 삶의 전부를 한순간에 불태워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등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평생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말 한마디에 의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말 하나로 평생 관계를 틀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자신의 입에서 어떠한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가 하나님과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 말씀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란 것은 '혀 조심'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였던 아담이 뱀의 속임에 넘어가 서로 죽이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매를 맞고 온갖 고통을 받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말입니다. 바울과 같은 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춘천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